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⑩

를 통해 시장의 문을 두드려오긴 했으나

아직 확실한 거래처는 나서지 않은 상황

이었다. 따라서 화천의 기계가 한국에서

는 나름대로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과연 세계 제일의 선진국인 미국시장에

서도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

그런데 첫 도착지인 LA에서 뜻밖의 성

과를 거두게 되었다. 점심 식시를 위해 들

른 '우래옥'이라는 한국 식당에서 재미

교포 허만 최(한국명 최희만)씨를 우연

히 만난 것이었다. 그는 우리 공장에 몇

번 다너간 적이 있는 무역상으로 서로 좋

은 인상을 지니고 있던 터라 새삼스레 반

가운 만남이 되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사업 예기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허만

최씨는 마침 잘 아는 미국 기계 수입상을

한국에 데리고 가서 화천에 소개하려던

참이었다고 하면서 그를 소개시켜 주기

로 했다. 그가 바로 화천의 미국시장 진출

의 첫 문을 열어주게 되는 발스비(Robert

S. Bursby) 씨였다. 당시 발스비씨는 재

팬 머시너리(Japan Machinery)라는 상호

를 내걸고 주로 일본의 모리세끼 435형과

이 무렵 화천에서도 모리세끼 선반과

성능이나 품질 면에서 비슷한 공작기계

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발스비씨는 품질

과 성능만 믿을 수 있다면 당장에라도 계

약하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이 자리에

서 나는 발스비씨와 435형 5대, 520형 10

대를 우선 수출한 뒤 반응이 좋으면 1977

년부터 5년 동안 연간 최소 500대에서 최

대 1,000대를 수출한다는 파격적인 조건

수출시장 개척이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나는 이 같은 기대 이상의 성과

에 큰 힘을 얻었다. 아울러 우리 화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원공단에 입주해

도 괜찮겠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세계 공작기계 시장의 현실

을 둘러보면서 '우리도 국내시장에만 만

족할 것이 아니라 한시바삐 세계시장 진

출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

으로 수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520형 등의 선반류를 취급하고 있었다.

지 못한 초조한 여정이었다.

당 박성민

상무를 대

동하고 대

미수출 세

일즈 출장

길에 올랐

다. 이미

지난해부

터 코트라

(KOTRA)



△창원공장준공식

〈지난호에 이어〉 창원공단 입주의 모험

기계공업은 모든 산업에 대하여 기초적 인 생산설비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산업 이다. 따라서 전후방 연쇄효과가 크고 부 가가치도 막대하다.

창원공단 입주 결정

1975년 9월 상공부로부터 창원공단 입 주를 권유하는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다.

내용은 창원에 종합기계공단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화천 같은 전통 있는 공작 기계 메이커가 앞장서 입주해주기를 희 망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입주 할 입장이 못 된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정 부에서는 화천의 기술력과 규모를 상당 히 높게 평가하는 모양이었지만, 그때까 지 나는 우리 화천의 능력이 창원공단에 입주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하 고 있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힘에 벅찬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작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것 이 경영의 미덕이라고 믿고 있다.

나의 분명한 입주 사양의사 전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권유는 몇 차례 더 계속 되었다. 마침내 1976년 2월에는 청와대까 지 나섰다. 나는 거의 마지 못하는 심정으 로 당시 오원철 경제수석 비서관으로부 터 청와대 방문 통보를 받고 그를 찾아갔 다. 그 자리에서 경제수석은 '한국 최초 의 종합기계공단에 화천 같은 전문 메이 커가 입주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부 의 기계공업 육성의지를 의심하게 된다' 고 하면서 입주에 필요한 자금은 전폭 지 원하겠으니 꼭 입주해달라고 거듭 호소 하였다. 이때 나는 경제수석에게 이런 제 안을 하였다. "우리 화천이 창원에 입주 를 결정하기 전에 제가 미국을 한번 다녀 오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가 만든 물 건을 팔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알아본 후에 결심을 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경제수석은 흔쾌히 받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화천의 창원공단 입주는 쫓기듯이 결정되었다.

미국시장부터 개척하고 보자

자시는 김 제1화

-1-1-1126

였다. 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기술개발 월 11일 나 과 품질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되겠다는 는 기획담 각오를 다졌다.

난관 속의 창원공장 건설

나는 귀국하자마자 귀국인사 겸해서 청 와대를 방문하여 오원철 경제수석비서 관을 만났다. 내 얘기를 듣고 난 후 오 비 서관은 "권 사장, 정말 큰일을 하셨소. 권 사장의 일이 곧 국가의 사업이며, 우리 민 족의 장래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수출 계약서야 화천의 것이겠지만 내 자신의 일처럼 반갑고 기쁩니다. 화천의 창원공 단 입주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든지 지원 할 터이니 공장건물부터 먼저 지으시지 요."라며 두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아 분명한 결의를 보이는 것이었다.

창원공단 입주를 결정하고 1976년 8월 24일 정부로부터 입주 업체로 지정을 받 으면서 공장 건설은 본격화되었다. 이때 화천은 정부로부터 공자 시설자금으로 600만 달러의 차관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은 10년 연부로 상환하는 아주 좋은 조건의 외국차관이었다.

새 공장이 들어설 자리는 30여만 평의 완암단지로 화천은 이곳에 3만 2,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1977년 4월까지 제반 건 설계획을 완료하였다. 계획의 골자는 확 보한 부지에 총 1만여 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여 최신 공작기계 생산설비를 갖 추고,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해 NC 자동선반을 비롯한 각종 고급 정밀 공작 기계를 개발・생산함으로써 화천의 대량 수출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것이었다.

기계 설치와 준공

기계 설치가 거의 다 되어갈 무렵 4.000 여 평의 공장과 각종 부대시설, 800여 평 의 새마을회관(사원아파트), 4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그리고 종합휴게실(식당 포함) 등 대부분의 건축공사도 마무리되 었다.

당시 외국에서 도입해 설치한 주요 기 계는 미국 데블리지(Devilieg)사의 Jig Mill을 비롯하여 공구 60개가 자동으 로 기능을 발휘하는 일본 미쯔이 세이 키(Mitsui Seiki)의 Machining Center 및 Excello 연마기 등과 독일 크부프 그(Coblurg)사에 주문한 Planer Bed Grinder도 뒤이어 설치되었다.

이 외에도 창원공장에는 최신식 밀링, 보링, 그라인딩 기계들, 고정밀 측정설비 등을 고루 갖춤으로써 명실공이 세계적 인 종합공작기계 메이커의 위상을 자랑 하게 되었다. 이로써 화천은 1980년대 도 약의 발판이 될 창원공장시대를 힘차게 개막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고대사 揆園史話 ②

■一沙權正孝點

〈지난호에 이어〉

旦夫! 山岳之莊雄, 河海之汪洋, 萬象森 列, 兆物備載, 岳頂一(卷)[拳]之石, 谷底 一莖之草, 自得其所, 互誇厥美; 糞堆蠢 之蟲. 長渚飄泊之藻. 各安其所. 互弄厥質; 孰撑是而不崩, 孰護是而不決? 孰守是, 孰 掩庇是? 意者, 宇宙之內 蒼茫之外, 別有眞 神之主宰歟? 東人則曰桓因主神. 漢土之人 則曰上帝, 西域之人則曰佛 , 大秦之人則 曰天主, 皆以主宇宙 統萬象爲言. 其造物 者之爲性也, 隨民而各異耶? 同 而異用 耶?抑!同一而異觀耶?同一之元首而.我 曰(王)[壬]儉, 漢曰帝王, 倭曰命或尊. 諸 民之名造翁也,亦若是而已耶? 飛螢有光,

木放氣. 梨之木能接枝而致盛. 鼻鷄之 屬能抱卵而 育. 是, 質之外, 別有精力 耶? 物物之精力, 能相交而致生耶? 宇宙之 內 蒼茫之外, 別有精靈, 貫流周包, 推運其 體質耶? 漢人之說, 盤古.三皇之開闢創始 者,實耶? 東人之言, 三神之肇判開創者, 眞耶? 余不敢校其善否. 宇宙之內 蒼茫之 外, 別有一大精靈, 維綱是, 主張是, 能推運 而經營之.則信矣.

또한 산악의 웅장함과 강과 바다의 광 대함 속에는 만 가지의 모습들이 늘어서 있고 억 가지의 사물들이 갖추어 실려 있 으며, 산마루의 한줌 돌과 골짜기의 한 뿌 리 풀도 스스로 자리하는 곳을 얻어 그 아름다움을 서로 뽐내고, 거름더미에서 꿈틀거리는 벌레와 늘 물가를 떠다니는 풀들도 제각기 자기 자리에 깃들여 그 모 양을 서로 희롱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떠 받쳐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있으며, 누가 이를 보호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있으 며, 누가 이를 지키고 누가 이를 감싸안아 돌보고 있는 것인가? 생각건대 우주의 안 으로 아득히 넓은 그 언저리에 따로 참된 신이 있어 이를 주재하고 있는 것인가?

동방의 사람들은 곧 '환인주신(桓因主 神)'이라 하고, 한나라 땅의 사람들은 '상 제(上帝)'라 하며, 서역 사람들은 '불타



(佛陀)'라 하고, 대 진 사람들은 '천주 (天主)'라 하는 것 은 그 모든 것이 바 로 우주를 주재하 고 만물을 통치함

을 말로서 드러낸 것이다. 그 조물주의 성품은 백성에 따라 제각기 다른 것인가, 바탕은 같으면서 드 러남만이 다른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온전히 같으나 달리 볼뿐인가? 같은 우두 머리를 두고 우리는 '임금'이라 하고, 한 나라는 '제왕'이라 하고, 왜는 '명' 혹은 '존'이라 하니, 모든 민족이 조물주를 이 름하는 것 또한 그와 같을 따름인가?

날아다니는 반딧불에도 빛이 있고 썩 은 나무에서도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감 나무 배나무는 가지에 접을 붙이면 능히 과실이 무성해 지고, 오리나 닭 등은 알을 품어 능히 새끼를 낳아 기르니, 이것은 몸 의 바탕 외에 따로 응결된 힘이 있는 것 이며 그러한 사물과 사물들의 응결된 힘 이 서로 교접하여 능히 생명을 낳는 것인 가? 우주의 안으로 아득히 넓은 그 언저 리에 따로 정령(精靈)이 있어 일관되게 흐르고 두루 감싸안으며 그 몸의 바탕을 밀어 움직이게 하는 것이겠는가?

한나라 사람의 말에는 반고(盤古)와 삼 황(三皇)이 세상을 처음으로 연 창시자라 하는데 이것이 진실인가? 동방 사람의 말 에는 삼신(三神)이 세상을 처음으로 가른 창조자라 하는 데 이것이 진실인가? 내가 감히 그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주의 안으로 아득히 넓은 그 언저리에 따로 한 큰 정령(精靈)이 있어 이 세상을 잡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주재하여 펼치 며 능히 밀어 움직여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곧 믿을 만한 것이 될 것이리다.

〈다음호에 계속〉

槐雲 칼럼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소감

■ 槐雲 權 海 兆 (僕射公派, 三槐堂宗中)

지난 5월 중순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 태인 최대수용소였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폴란드 명 Oswiecim: 오슈비엥침)수용 소를 방문하였다. 폴란드의 남부 문화, 교 육, 문학의 도시인 옛 수도 크라코프에서 서쪽 6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우슈비츠는 원래는 인구 5만의 조용 하고 평화로운 공업도시였으며, 부근에 양질의 석탄광산과 유명한 비엘리츠카 (Wieliczka) 소금광산이 있다. 독일이 이 곳에 수용소를 설치한 이유는 교통의 중 심지로, 당시 군수물자의 보급기지가 있 었고 이 지역에 전체 유태인 60% 이상이 살고 있으면서 그들만의 종교와 부(富) 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치 가 유태인을 학살한 이유는 히틀러가 유 년시절 유태인 대학총장 때문에 예술가 의 꿈이 좌절되고, 유태인 여성과 짝사랑 등 정신적 콤플렉스가 크게 작용을 했으 며, 당시 유태인이 페스트를 전염시켰기

때문이라 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처음에는 폴란드, 독일의 정치범과 소련군의 포로를 수용 하기 위하여 1940년 4월 27일 이곳에 제 1 수용소가 세워져 40년 6 월부터 폴란드 정치범이 수용되었다. 수용인원이 넘치자 41년 10월 3km 떨어진 비르게나우(폴란 드 명: 브레징카)에 1수용수의 10배가 넘 는 제 2수용소와, 근처 제 3수용소까지 건 설하였다. 처음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42 년부터 본격적인 대량살해 시설로 변모 되고 1944년까지 유태인 400-600여만 명 이 대학살되었다.

독일은 학살증거인멸을 위하여 종전을 앞둔 1945년 1월 수용소 대부분을 불태웠 다. 그러나 소련군의 조기 진주로 1수용 소 일부가 남았으며, 폴란드 정부는 나치 에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현 존 보존을 결정하고 1947년 제 1수용소 지역에 박물관을 만들고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아우슈비츠 제 1수용소는 전체 28동의



고 150만 명이 목숨 을 잃었다. 제 1수용소 입구 철문에는 독 일어로 'Arbeit Macht Frei(일하면 자유 로워 질수 있다)'라는 나치의 기만슬로건 이 걸려 있었다. 당시 제 2수용소에서 희 생자기 가장 많았으며 통상 다큐멘트리 영화 제작은 제 2수용소를 형상화하고 있 다. 2수용소 입구는 '죽음의 문'이라 불렀 으며 열차노선이 끝나는 부분에 '국제 위 령비'가 건립되어있다.

제 1수용소 자리였던 박물관을 둘러보 니, 도망자를 막기 위해 고압전류가 흐르 는 철조망, 고문실, 샤워실로 가장한 가 스실과 교수대, 특히 박물관 내부에 진열 된 유품들과 부착된 여러 사진들을 보니, 당시 나치의 가혹한 잔인성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사람을 굶겨 피골이 상접 되고 동공이 초점을 잃어 영혼이 빠져버 린 산송장의 모습들, 무수히 남겨진 유품 들 가운데 신발, 의족(義足), 안경과 밥그 릇, 이름과 번호가 새겨진 수많은 가방들, 머리털을 잘라 만든 수제 카펫 등을 보니 20세기 인간이 보여준 최고의 비극 현장 이었다. 당시 나치는 수용소로 무차별 끝 려온 포로를 고문 선별하여 노약자, 불구 자, 어린이 등 무 노동력 자는 샤워실(가 스실)로 끌고 가서 독가스로 죽였다. 당 시 나치가 개발한 독가스 1통에 400여명 을 죽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체의 머리카 락은 수제품, 기름은 비누, 뼈는 비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2차 대전의 뼈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숨 겨있는 이곳 수용소를 보니 예술과 낭만 이 가득한 유럽의 풍경과는 너무나 동떨 어진 아픔과 비극의 역사현장 이었다. 언

■ 총재단회비 △권길상(부총재) 100만원 ■ 종무위원회비 20만원 △권영환(음성) △권오식(안동) 20만원 △권택원(예천) 20만원

성원에 감사드립니디

소 계 10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오섭(진천) 10만원 △권오현(음성) 10만원

△권오익(인천)

△권용호(포항)

△권태복(금천)

소 계 3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합계 230만원





젠가 가본 우리나라 거제도에 있는 6.25 포로수용소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리고 당시 중국 하얼빈 남방에서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인을 감옥에 가두고 생체실 험을 했던 일본의 731부대(마루타)나 오 늘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상상해보 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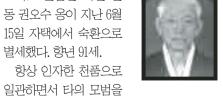
특히 이곳을 찾는 한국관광객은 연간 4 만여 명이나 되고 독일관광객도 많지만 일본관광객은 볼 수가 없다는 안내자 말 을 듣고 일본에 대해 증오감을 느꼈다. 전 후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에 용서 를 구한 독일과 너무나 다르게 강제로 끌 고 간 군대위안부를 부정하며, 731 부대 만행을 숨기고 새롭게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며 군국주의로 회귀하려하려는 후 안무치(厚顔無恥)의 일본 정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시 유태인의 학살과 수용소의 비참성 은 영화 '우울한 일요일' 등에서 엿볼 수 있었지만, 인간이 저질은 가장 야만적이 고 잔악한 광기의 역사현장을 보고 마음 이 아팠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의 명복을 빌며, 이 땅에 다 시는 전쟁의 비극과 잔악한 인권유린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박물관을 나왔다.

別世

原任 權五銖 옹 별세

시조 원임을 지낸 안 동 권오수 옹이 지난 6월 15일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보이며 오문문사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권 옹은 많은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17일 3일 장으로 안동시 안막동 선영에 배위 창원황 씨와 합폄했으며 슬하게 5남(奇逸, 奇彦, 奇 洪, 奇正, 奇東)을 두고 있다.

전쟁이 가져 온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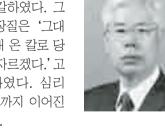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남조 송의 문제 유의륭이 황제에 오른 지 27년이 되 는 해에 역시 등극한지 27년이 되는 북위 의 태무제 탁발도(拓拔壽)가 송을 공격하 러고 하였다. 북조를 통일했으니 남조까 지 멸망시켜서 진시황제를 닮아 대일통을 달성해 보려는 속셈이 있었는지 모를 일 이다. 아마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했을 것 이다. 모두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정보를 입수한 송의 문제는 장강 이 북에 사는 주민을 모두 장강을 건너 남쪽 으로 오게 하고 그 일대에는 성이건, 건 물이건, 배건, 수레건 모두 불태우게 하였 다. 이른 바 청야작전인 것이다. 적이 들 어온다고 하여도 현지에서 보급품을 구 할 수 없게 하여 오래 머물 수 없게 하려 는 대책인 셈이지만 싸우기 전에도 이미 집과 재산을 잃는 비극은 시작되었다. 예 상대로 북위의 군대는 남쪽으로 내려와 서 우이(盱眙, 강소성 우이현)를 공격하 기 시작했다. 물론 북위의 황제인 탁발도 가 직접 내려왔고 이를 막는 송의 장수는 장질이었다. 장질로서는 힘겨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탁발도가 장질에게 술을 달라고 하자 장질은 오줌 한 통을 보냈다. 신경전이 시 작된 것이다. 탁발도가 우이성을 공격하 면서 자기가 데리고 온 병사들은 주변의 소수민족들이니 싸우다 죽어도 북위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를 제거하는 것이라

고 하면서 장질에 게 공갈하였다. 그 러자 장질은 '그대 가 보내 온 칼로 당 신을 자르겠다.'고 응수하였다. 심리 전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심리전에서 이기지 못한 탁발도는 화 가 나서 쇠로 상을 만들어서 철침(鐵針) 을 꽂아 놓고 장질을 잡으면 그 상위에 올려놓겠다고 별렀다. 그러자 장질은 탁 발도에게 끌려 온 북위의 병사들에게 '너 희 주군이 너희들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한' 펀지 내용을 알려 주면서 탁발도의 목을 베어 오면 만호후로 책봉하겠다고 격문을 보냈다.

더 이상 심리전이 안 통하는 것을 안 탁발도는 총력을 기울여 우이성을 공격 했다. 북위는 갈고리로 성을 무너트리려 고 했고, 또 충차(衝車)로 성을 허물어 버 리려고도 했다. 나중에는 북위의 병사들 이 맨몸으로 성에 다가와서 오르기도 했 다. 이들은 서로 교대로 성에 오르려고 하 는데 떨어지면 다시 오르고 하면서 물러 나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로 사생결단하 는 공격이었지만 장질은 잘 막았다. 그래 서 죽고 부상당하는 북위의 사람은 1만 명을 헤아리니 시체가 성의 높이와 같게 되었다. 북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맹공을 퍼 붓기 30일이 되어도 우이성은 함락되지 않았는데, 전염병까지 돌았다. 탁발도는 하는 수 없이 공격도구 를 불사르고 군대를 퇴각했다. 그러나 이 들은 물러나면서 순순히 떠나지는 않았다. 북위의 군사들은 이기지 못한 분풀이를 송의 다른 지역을 지나면서 공격하였다.

그리고 어른을 만나면 목을 베거나 아 니면 사지를 절단했다. 어린애를 붙잡으 면 이를 창끝에 꿰어가지고 빙빙 돌며 춤 추는 것이 마치 장난감놀이를 하듯 하였 다. 마치 우이성에서 실패한 보복이라도 하는 듯 했다. 그래서 북위의 군사들이 지 나간 자리는 초목이 없는 적지(赤地)가 되었다. 그렇지만 북위의 군사와 군마 가 운데 죽거나 부상을 당한 것이 역시 절반 을 넘었다. 송과 북위가 서로 상대를 멸망 시키려고 전쟁을 하였다가 피차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무엇인가 더 얻으려 고 일으킨 전쟁은 양쪽을 다 패배자로 만 들었을 뿐이다. 어느 전쟁인들 이 같은 비

극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는가? 남선북마(南船北馬), 남쪽에서는 배 를 타야 했고 북쪽에서는 말을 타야할 만 큼 환경이 다른 남조와 북조가 통일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다만 국내를 통일에 성 공한 북위가 그 욕심 때문에 일으킨 것일 뿐이다. 그 욕심이 많은 시람에게 비극을 가져 온 것이다. 어디 남북조 시대 뿐만 이겠는가? 우리가 겪은 6.25도 바로 대결 속에서 상대방을 없애려는 정치지도자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힘없는 민초 들만 죽어야 하는 비극뿐인 전쟁은 모두 정치지도자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한 것 같다.